19世紀 後期國語의 硏究

—〈母音音韻論〉을 중심으로—

崔 明 玉

1. 序 論
2. 副詞形 語尾의 交替
3. 滑音化와 滑音添加
4. 語幹과 語尾의 母音削除
5. 結 論

1. 序 論

이 論文은 19世紀 後期國語의 形態素境界에서 일어나는 모음 음운현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國語史에서 19세기 후기국어 시기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橋梁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현대국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李基文, 1978/72:186).

그러나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대국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과연 이 시기의 국어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 말은 아직 이 시기의 국어가 가진 성격을 논의할 만큼 충분히 이 시기의 국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국어연구가 그 동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연구자의 관심과 당시의 국어가 수록된 문헌 및 문헌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어가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이나 구조주의 언어학적 방법으로 연구되던 시기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대부분 중세국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 근대국어에 대한 관심이 高調되기 시작하였다(李崇寧, 1970,71,72; 李秉根, 1970; 南廣祐, 1971; 李承旭, 1971; 田光鉉, 1971a,b). 그러나 그 시기에 변형·생성문법론에 의한 현대국어

의 연구가 시작되고 그 세력이 압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모처럼 시작된 근대국어의 연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변형·생성문법론에 의한 현대국어의 일방적인 연구에서 탈피하여 문헌어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국어학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각성이 촉구되면서 1980년대부터 다시 문헌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李基文(1979), 김정수(1979), 洪允杓(1980a,b), 南星祐(1980), 李根圭(1980), 郭忠求(1980) 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이 시기의 국어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 시기의 국어연구가 새롭게 활기를 띠게 된 것은 국어의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가 조화를 이룰 경우에 바람직한 국어학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각성이 촉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시기의 국어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자료가 影印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저자나 언해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문헌마다 표기가 달라 그러한 자료들을 함께 취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19세기 후기국어의 실제 언어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J. Ross(1877)의 ***Corean Primer*** (〈한국어 초보〉), J. Ross 외(1882)와 (1887)의 〈누가복음〉, 〈요안닉복음〉과 〈예수셩교젼셔〉, 러시아정교선교협회(1902-04)의 ***Azbukadlja Korejstsev*** (〈한국인을 위한 철자교과서〉)(1902), ***Russko-Korejskie Razgovory***(〈露韓會話〉)(1904), ***Slova i Vrazhenijak Russko-Korejskim Razgovoram***(〈〈露韓會話〉에 대한 단어와 표현〉)(1904),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試篇露韓小辭典〉)(1904) 그리고 申在孝(1853-84)의 〈판소리 사설(姜漢永(校注), 1971, 申在孝판소리사설集(民衆書館)〉 등이 그것이다.[1]

이 중 J. Ross(1877)과 러시아정교선교협회(1902-04)는 각각 당시의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에 비하여 방언의 반영 정도는 덜하지만, 申在孝(1853-84)는 당시의 서남방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러시아정교선교협회(1902-1904)는 20세기초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수록된 언어는 19세기후기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 문헌과 자료의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J. Ross(1877, 1882, 1887)은 崔明玉(1985), 러시아정교선교협회(1902-1904)는 郭忠求(1991:7-26) 그리고 申在孝(1853-84)는 姜漢永(1971:33)과 崔銓承(1986:4-14).

지금까지 이들 자료들은 개별 방언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만약 여기에 중부 방언을 반영하는 〈죠군령뎍지〉, 〈過化存神〉, 〈관셩경언해〉, 〈三聖訓經〉 등의 문헌자료가 추가된다면, 19세기 후기국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다. 그런데 국어의 모든 현상을 한정된 지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범위를 음운론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다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음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와 목적을 한정한다.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 종래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하나는 표기와 실제 언어현상을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헌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매우 엄격한 표기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헌 자료에 수록된 국어는 기록 당시의 국어가 가진 실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국어 연구의 대상이 자연 그대로의 국어 즉 토박이 국어 화자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할 때에, 표기법의 제약에 의하여 기록된 국어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크게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연구자는 대상 자료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표기법에 의한 것과 실제 언어를 반영한 것을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표기법에 대하여는 예외적이면서 음성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예가 있다면, 그것이 당시의 실제 언어를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후기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는 '듣는(듣一聞, 月10:26b)', '묻ᄂᆞ니(묻一問, 月10:69b)'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자음동화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러나 같은 시기나 동일 문헌에서 발견되는 '돋는(돋一走, 杜초 7:11a)', '돋니ㅡ(돋니ㅡ行, 月 9:61b)'와 같이, 당시의 표기법에 의하면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에도 자음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당시의 일반적인 어형에 비하여 후대의 어형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언어를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는 것이다. 근대국어의 자

(2) 중세국어 문헌 略號는 劉昌惇(1984)의 '凡例' 15(出典略號)를 참고할 것.

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시기의 중앙어 자료는 표준어 '하ㅡ'(爲)나 '하+어'에 대하여 거의 'ᄒᆞㅡ'나 'ᄒᆞ여, ᄒᆞ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중앙에서 간행된 〈죠군령뎍지〉의 '못헌지라(죠 27a)'나 서남방언을 반영하는 〈박타령〉의 '만히도(많ㅡ多, 박 416)'는 현대의 중부방언이나 서남방언 등에서 사용되는 어형이다. 이것은 당시의 중앙어가 이미 '하ㅡ'에 대하여 '허ㅡ'를 가지고 있었으며 '(X)하ㅡ'가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이미 '(X)해ㅡ'로의 어간 재구조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려준다. 本稿에서 필자는 문헌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이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本稿의 논의 대상이 되는 방언 중에서 중부방언과 서북방언 그리고 동북방언은 모두 8모음체계(/이, 에, 애, 으, 어, 우, 오, 아/)를 가지며 서남방언은 9모음체계(/이, 에, 애, 외 : 으, 어, 우, 오, 아/)를 가진다.[3] 이러한 모음체계를 가진 방언에서 실현되는 모음의 음운현상을 부사형어미의 교체, 활음화와 활음첨가, 그리고 어간과 어미의 모음 삭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자한다.

2. 副詞形語尾의 交替

중세국어 자료에 의하면, 부사형어미 '—아X'의 '아'는 모음조화를 보였다. 이때의 모음조화는 통합하는 서술어의 어간 말음절의 모음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어간 말음절이 단모음 '아, 오, ᄋᆞ'일 때에는 '아'가, '어, 우, 으, 이'일 때에는 '어'가 통합하였다. 예, 바사(밧ㅡ脫, 용 92), 도라ᅀᅡ(돌ㅡ廻, 金삼 2:42), ᄂᆞ라(놀ㅡ飛, 용 86)) : 머러(멀ㅡ遠, 용 47), 주거(죽ㅡ死, 곡 43), 드러(들ㅡ入, 용 33), 기퍼(깊ㅡ深, 용 109). 어간 말음절이 하향 이중모음일 때에는 음절 핵모음이 '아, 오, ᄋᆞ'이면 '아'가, '어, 우, 으'이면 '어'가 통합하였다. 예. 내야(내ㅡ生, 月 18:40), 뵈야(뵈ㅡ曝, 月 1:48), 씨야(씨ㅡ醒, 杜초 10:3) ; 혜여(혜ㅡ計, 釋 19:24), 뷔여(뷔ㅡ刈, 杜초 7:32), 긔여(긔ㅡ匍匐, 月 1:15).

(3)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모음체계 중 중부방언의 것에 대하여는 李秉根(1970)을, 서북방언의 것에 대하여는 崔明玉(1986)을, 동북방언의 것에 대하여는 郭忠求(1991)을, 서남방언의 것에 대하여는 崔銓承(1986:87-88)을 참조할 것.

한편 崔銓承(1986:69)은 중부방언에 대하여 單母音 '외'의 존재를 인정하여 9모음체계를 주장하며 崔林植(1984:127)는 서북방언에 대하여 單母音 '외'와 '위'의 존재를 인정하여 10모음체계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어미의 '아'가 서술어 어간과 통합할 때에 실현되는 양상은 중세국어와는 매우 다르다. 물론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행되는 과정에 'ᄋᆞ'가 소실되고 이중모음들이 단모음화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중세국어와 맥을 잇는다고 할 수 있는 중부방언의 경우, 어간 말음절이 '오'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간 말음절 모음에 관계없이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 자버(잡—執), 도라(돌—廻), 머러(멀—遠), 주거(죽—死), 드러(들—入), 기퍼(깊—深), 깨어~깨:(깨—破), 쬐어~쬐:(쬐—曝), 메어~메:(메—擔), 쥐어~쥐:(쥐—把). 이 사실은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행되는 어느 시기에 소멸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근대국어의 어느 시기에 소멸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國語史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이 현상이 19세기 후기국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같은 환경에서 19세기 후기국어를 구성하는 각 방언 자료가 보여주는 부사형어미의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4)

(1) 어간 말음절 모음이 '아'일 때

a. 중부 : ᄌᆞ바/잡아(잡—執, 관성 35a/과3b), 바다(받—受, 과 6a), 가라야(갈—耕, 조 32b), 나아(낳—産, 과 13a), ᄎᆞᄌᆞ(찾—尋. 과 13b), ᄒᆞ얏더니(하—爲, 과 6b); 말미암아(말미암—由, 조 18b), 향ᄒᆞ야(향하—向, 과 7b)

cf. 안져도/안졋더니(앉—座, 관성 31a), ᄎᆞ져(찾—尋, 조 26b, 29b), ᄒᆞ여야(하—爲, 관성 12b), ᄒᆞ엿더니(하—爲, 과 11a), 향ᄒᆞ여(향하—向, 과 13a)

b. 서북 : 마나(많—多, 코 42), 마타(맡—嗅, 코 72), 다다라(닫—閉, 코 19),

---

(4) 本稿에서 사용된 文獻 略號는 다음과 같다.

〈중부방언〉 : 조=조군령뎍지, 관성=關聖帝君明聖經, 과=過化存神, 種德=德種新編諺解, 삼=三聖訓經, 남궁=南宮桂籍, 閨閣=閨閣叢書

〈서북방언〉 : 코=*Corean Primer*, 누=누가복음(1882), 요=요안닉복음(1882), 요묵=요안닉묵시록(1887),

〈동북방언〉 : 교=〈韓國人을 위한 綴字敎科書〉, 사=〈試篇 露韓小辭典〉, 회=〈露韓會話〉, PU.=푸찔로의 〈로한ᄌᆞ뎐〉 (1874), 표=〈露韓會話〉에 대한 단어와 표현

〈서남방언〉 : 박=판소리사설 박타령, 춘=판소리사설 春香歌, 토=판소리사설 兎鼈歌. 서남방언의 경우에 자료 출처와 페이지 수는 편의상 姜漢永(1978)에 의한다. 그러나 사용된 자료는 〈姜漢永, 1969, 申在孝판소리全集(影印) (연세대 인문과학연구 자료총서 5)〉에서 확인하였다.

마자(맞—迎, 코 44), 차자라(찾—尋, 코 40), 깍가(깎—削, 코 20), 돗하야(못하—, 코 57)

cf. 안저(앉—座, 코 54, 누 5b, 요 17b), 하엿슴메(하—爲, 코 15), 간딕하여(간딕하—持, 누 3b)

c. 동북 : 마라사〈=야〉 (말—莫, 교 17), 자바(잡—執, 교 16), 안자쏘(=앉았소) (앉—座, 사 54); 따가바서(=뜨거워서) (따갑〈=뜨겁〉—熱, 교 24)(5)

d. 서남 : 잡아(잡—執, 춘 56), 나라(날—飛, 춘 22), 안자(앉—座, 춘 84), 알아(알—知, 춘 54); 본바닷소(본받—模倣, 춘 44), 만낫다(만나—逢, 춘 58)

cf. 마져(맞—被打, 박 342), 차져(가네) (찾—尋, 춘 80, 박 406), 안져(앉—座, 춘 50, 66) 담어(담—盛, 춘 84), 갓터(같—如, 춘 88), 다어(닿—接, 춘 58), 갑퍼(갚—報, 춘 36), 바더(받—受, 박 380), 알어(알—知, 박 402), 밧터(밭〈=뱉〉—唾, 춘 84), 하여(하—爲, 춘 70), 감어라(감—卷, 박 382), 붓잡어도(부짭〈=붙잡〉—執, 춘 68)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아'일 때, 부사형어미 '—아X' (이하 '부사형어미'는 '아X'의 '아'를 표시함)는 중부, 서북, 동북의 방언에서 대체로 '아'로 실현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제시된 문헌에 한정시킬 때에, 동북방언에서는 하나의 예외도 발견되지 않으며, 서북방언에서는 '앉—'과 '(X)하—', 중부방언에서는 '앉—, 찾(ᄎᆞᆺ)—'과 '(X)하—'(6) 뒤에서 예외가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부사형어미는 '앉—'의

(5) 동북방언의 자료는 원래 키릴문자로 轉寫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되는 자료는 郭忠求(1991)에 로마字로 전환시켜 제시한 것을 다시 필자가 한글로 바꾼 것이다. 키릴문자 轉寫 자료를 로마字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겪은 郭忠求 교수의 노고에 대하여 敬意를 표하며 그런 자료를 本稿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6) '(X)하—'는 문헌에서 'ᄒᆞ—, 하—, 허—'와 같이 세가지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口語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방언의 자료나, 서북방언의 자료 중 ***Corean Primer***에는 'ᄒᆞ—'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기에 나타나는 모든 'ᄋᆞ'나 '이'는 '아'나 '애'와 전혀 동일하므로, 'ᄒᆞ—'는 표시의 한 형식일 뿐 실제는 '하—'와 같은 것이다. 한편 중부와 서북 및 서남 방언에는 다음과 같이 '하—' 외에 '허—'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ᄋᆞ'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ᄒᆞ—'로부터 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들 방언에는 '(X)하—'와 '(X)허—'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중부 : 허지(허〈=하〉—爲, 죠 9a), 무식헌(무식허—無識, 죠 35b)

서북 : 허시(허〈=하〉—爲, 코 11), 허노라고 (허 〈=하〉—爲, 코 15)

서남 : 허우(허〈=하〉—, 爲, 춘 86), 그리헐(일) (그리허—爲, 박 382)

한편 서남방언에서 발견되는 '(암만) 히도(춘 10), 겸힛시니(춘 60)' 등이나 동북방언에서 발견되는 '해애두(하+어도, 사 67), 해애셔(하+엿+어, 교 57, 67)' 등의 예는 어미 '아'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사 '(X)하—'

뒤에서는 언제나 '어'로 실현되며, 나머지 동사 어간 뒤에서는 '아'나 '어'로 실현된다.

그런데 서남방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1d)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를 가진 다수의 어간 말음절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아'로 실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어간 뒤에서 '어'로 실현되고 있는 예들의 수가 예외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시기의 서남방언은 '아'를 가진 어간 말음절 뒤에서 부사형어미를 '어'로 실현시키는 경향이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당시의 중부, 서북, 동북 방언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아'인 경우와는 달리, '오'인 경우에는, (2)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어간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아'로 실현된다. 이 점은 네 방언에서 모두 동일하다.

(2) 어간 말음절 모음이 '오'일 때

a. 중부 : 놉하(높—高, 관성 23a), 도라(돌—廻, 과 10a), 노아(놓—置, 과 10a), 보아도(보—示, 관성 31a); 닷토와(다토〈=다투〉—爭, 과 3a), 갓쵸와(갓초—備, 죠 21a)

b. 서북 : 도다(돋—昇, 코 68), 노파도(높—高, 코 70), 노와(놓—置, 누 47b), 와서(오—來, 코 77); 닷토와(다토〈=다투〉—爭, 요 11b)

c. 동북 : 도바〈=도와〉 (돕—助, 사 36), 고바〈=고와〉 (곱—麗, 교 44), 도라(돌—廻, 사 9)

d. 서남 : 좁아(좁—狹, 박 380), 노와(놓—置, 춘 84), 도라(돌—廻, 춘 50), 보와(도) (보—示, 박 324); 닷토와셔(다토〈=다투〉—爭, 박 330)

여기서 한 가지 논의하여야 할 것은 비어두 음절에서의 '오>우'의 변화이다. 비어두 음절에서 일어난 이 변화는 국어 모음조화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시기의 각 방언이 반영되어 있는 문헌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이 시기에는 '오>우'의 변화가 완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자연어를 매우 충실하게 轉寫한 것으로 알려진 동북방언 자료

가 '(X)해—'로 재구조화되었음을 알려준다(崔明玉, 1988:56). 다시말하면 '(X)하—'의 기저형은 /(X){하—해}—'이며 실제로 어미 '와'와 통합하는 것은 '(X)해—'이다. 그러므로 이 어간 뒤에서 어미 '아'는 (4)에서와 같이 '어'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X)하여'형은 예외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X)하야'형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

는 이 변화가 예외 없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7] 이러한 사정은 서북방언과 과서남방언에서도 거의 일치한다. (2b, d)에 제시된 '닷토—'와 같은 예가 있기는 하지만, '나추와(使低, 코 39), 밧구러(換, 코 39), 갓춘(備, 누 18a) 맛추니(接, 누 33b), 사구〈=사귀〉야(交, 누 34b), 아울나(並, 누 4b)' 등이나 '갓구와(栽培, 춘 2), 마츄와(契, 춘 86), 앙구와셔(使被抱, 춘 46), 속구와(使湧, 춘 82), 모우더니(聚, 토 278)' 등에서 보듯이 비어두 음절에 '오'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동사들이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에서 '오>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8]

이와는 달리, 중부방언 자료는 비어두 음절 모음 '오'에 대하여 '우'로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세하다. (2a)에 제시된 '닷토—, 갓초—'를 포함하여, 이시기에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제시된 '박고—(換), 모도—(集), 쓰호—(戰), 닷토—(爭), 논호—(分)' 등이 그들 예에 속한다. 그리하여 종래에 이들 예는 당시의 중부방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들 예가 수록되어 있는 문헌 자료들을 좀더 정밀하게 관찰하면, 그들 예는 실제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법의 제약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박고—(換, 閨閤 5b)'에 대한 '박구엿도다(관성 20a)', '아오르리(아울—並, 관성 24b)'에 대한 '아울너(관성 7b), 아울느랴(관성 14b)', '외오면(외오—暗誦, 관성 7a)'에 대한 '외우고(관성 6b)', '논호고(논호—分, 種德上 15b)'에 대한 '논원〈=누누이+은〉(것)(관성 20a)', '모도—(集, 種德序 7)'에 대한 '모뒤여(集, 과 4b), 모뒤리니(集, 과 4b)', '감초고(감초—藏, 관성 35a)'에 대한 '감출듯흔(藏, 과 8b)', 퓌오고(퓌오—發, 죠 6b)'에 대한 '피우고(發, 죠 21b, 24b)', '살오지(사로—燒, 죠 7a)'에 대한 '살우미(燒, 죠 17a)' 그리고 '(북) 도두어(〈도도—挑, 죠 39a)' 등과 같이, 많은 예들이 동일한 어

(7) 郭忠求(1991:213)은 한자어에 있어서도 이 변화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어두 음절 모음이 '오'일 때에는 비어두 음절 모음 '오'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p. 213)고 한다. 제시된 예들이 '노롬〈=노름〉, 소곰〈=소금〉, 오좀〈오줌〉' 등과 같이 명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두—' (集, 사 108), '논구—' (分, 교 16), '돌구—' (使廻, 사 73) 등의 동사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오>우'의 변화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동사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8)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닷토—'는 두 방언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

간에 대하여 두 가지 어형 즉, 모음조화를 따르는 '오'형과 비어두 음절에서 '오>우'의 변화를 반영하는 '우'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우'형의 표기 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형의 표기 예가 더 우세한 것은, 그들 문헌이 중앙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간 내부의 모음조화가 유지된 전통적인 표기 방식이 강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같은 시기에 충북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朴文鎬의 「女小學」이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들에 비하여 '오'형보다 '우'형의 예들을 우세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쓰우넌(쟈)(싸우—戰, 3:39b), ᄀᆞ추고(가추—備, 2:47b), 박구고(바꾸—換, 1:10a), 닷투넌(ᄌᆞ식)(다투—爭, 1:37a), ᄃᆞ투지(爭, 1:36b), 감출(장)(감추—藏, 2:2b), ᄂᆞ츄고(나추—使低, 2:30b)' 등.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이 표기의 제약으로 '오>우'의 변화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예로서 소위 ㅂ—변칙동사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들 동사는 원래 어간말에 '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β>w의 변화로 인하여 어간의 재구조화를 겪게 되었다. 그들 동사가 겪은 재구조화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달리 일어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사 '외롭 —(孤), 아름답 —(美) : 어둡 —(暗), 더럽 —(汚), 칩 —(寒)' 등은 β>w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외롭고(杜初, 22:53), 아름답도다(남명下 14) ; 어둡긔(능 1:97), 더럽다(杜초 25:46), 칩도다(杜초 8:45)'와 같은 활용형을 보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외로올(고)(유합下 44), 아름다올(미)(石千 30) ; 어드올(ᄉᆞᆫ)(능 1:100), 더러울(취)(자회下 33), 치울(쳐)(유합下 50)'와 같은 활용형을 보인다. 이러한 활용형을 보이는 시기에는 자음체계에 '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기저형만으로는 그들 두 종류의 교체형의 도출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9] 그러므로 그들 동사는 통합하는 어미의 첫환경에 따라 달리 재구조화된 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β>w의 변화 이후 어간말에 'ㅸ'을 가지고 있던 동사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 과정에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오, 아, ᄋᆞ'에 속

(9)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崔明玉(1985a)를 참조할 것.

하는 것이면 'ᄒᆞ>오'로, 그 외의 모음이면 'ᄒᆞ>우'로 재구조화되었다. 그 중 재구조화된 'X오—'는 비어두 음절에서 '오>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X우—'로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서북방언과 동북방언 및 서남방언의 자료에서는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은 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표준어 '즐겁—(樂), 더럽—(汚), 어렵—(難), 어지럽—(亂)' 등은 어간 말음절 모음이 '어'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X우—'형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자료에는 '질거온(관성 11a), 더러온(그릇)(죠 14b), 어려오며(과 5a), 어지러온(신하)(관성 10a)'과 같이 'X오—'형의 표기가 우세하다. 한편 표준어 '해롭—(害), 사납—(暴), 가깝—(近)' 등은, 만약 이 시기의 중부방언이 '오>우'의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에서 'X우—'형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자료에는 '히로온(관성 11b), ᄉᆞ오나온(과 7b), 갓가온(관성 11b, 과 4a)'과 같이 'X오—'형이 우세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더러운(더러우—汚, 관성 5a), 어려우리라(어려우—難, 죠 34a, 34b), 어두우면(어두우—暗, 죠 34b), 요괴로운(요괴로우—妖怪, 관성 6b)' 등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여 'X우—'형으로 표기된 예들이 있다. 이 예들은 'X오—'형에 비하여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당시의 중부방언이 비어두 음절에서 '오>우'의 변화를 겪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논의에 의하면, 이 시기의 중부방언은 비어두 음절에서 '오>우'의 변화를 겪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2)의 예들을 포함하여, 이음절 이상의 어간으로서 'X오—'로 표기된 이 시기의 중부방언과 서북방언 및 서남방언의 자료들은 실제로는 'X우—'형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어간 말음절 모음이 '에'나 '애'일 때, 중부, 서북, 서남 방언에서는 부사형어미가 '어'로 실현된다.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애'일 때, 중부와 서남방언에 각각 '키야'와 '미잣기로'와 같은 反例가 하나씩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예외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동북방언 경우에 부사형어미는 어간말이 閉音節이면 '아'로 실현되지만, 어간말이 開音節

이면 어간 말음절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어서, 동화되기 전의 부사형어미가 '아'인지 '어'인지 알 수 없다. (3)과 (4)의 예들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간 말음절 모음이 '에'일 때
  a. 중부 : 메여(메—擔, 관성 32a), 께어(께〈=뀌〉—貫, 과 10b) ; 굿세여(굿세—强, 관성 33a)
  b. 서북 : 뗴여(뗴—分離, 누 45a) ; 업데여(업데—伏, 누 10a)
  c. 동북 : 께에(께〈=뀌〉—貫, 사15), 메에(메—擔, 사 21), 세에(세〈=비싸〉—高價, 희 240)
  d. 서남 : 뗴여(뗴—分離, 춘 12), 페여(도)(페〈=펴〉—伸, 춘 68), 세여(도)(세—算, 춘 22)

(4) 어간 말음절 모음이 '애'일 때
  a. 중부 : 미져(맺—結, 관성 17a), 써여(깨—覺, 과 12a), 너여(내—出, 관성 16) ; 달너여(달래—慰, 과 3b), 보너여(보내—送, 관성 18a)
     cf. 키야(캐—採, 죠 2a)
  b. 서북 : 빼여(빼—拔, 누 12a), 매여(매—繫, 코 74), 내여(내—出, 누 4a) ; 놀래여(놀래—驚, 누 49b), 보내여스니(보내—送, 누 47b)
  c. 동북 : 매자라(맺—結, PU. 179), 내애(데디기〈=던지기〉)(내+어出, 사 15), 가래서(가래〈=가리〉+어選, 교 47)
  d. 서남 : 쎄셔(다가)(뺏—奪, 박 390), 써여(지고)(깨—破, 춘 70), 뗴여(매—繫, 춘 56) ; 달너여(달래—慰, 박 348), 보틔여(보태—加, 박 416)
     cf. 미잣기로(맺—結, 춘 58)

어간 말음절 모음이 '에'나 '애'일 때에, 동북방언이 개음절 어간 뒤에서 실현하는 부사형어미의 완전순행동화 현상은 (3a, b, d)와 (4a, b, d)의 자료가 해당 방언의 실제 어형을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다음과 같은 서남방언의 자료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찌졋쑤나(깨+어지—被破, 춘 84), (날이) 시도(새+어도曉, 춘 26), (암만) 히도(해〈=하〉+어도爲, 춘 10), 겸힛시니(겸해〈=겸하〉+었+으니兼, 춘 60), 권히라(권해〈=권하〉+어라勸, 춘 86), 만히도(만해〈=많〉+어도多, 박 416) cf. 만흐야도(박 328)〉, 달너(볼가)(달래+어慰, 박 366)' 등. 결코 예외라고 할 수 없는 상당수의 예에서, 어간에 통합하는 부사형어미의 완전순행동화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서남방언에 그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의 중부방언과 서북방언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

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시기의 중부방언과 서북방언 자료에서는 그러한 예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이면, 부사형어미는, (5)와 같이, 어간 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어간 말음절이 폐음절이면 부사형어미는 네 방언에서 '어'로 실현되는 것이 지배적이다.[10] 그러나 어간이 이음절이고 어간 말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면, 부사형어미는 어간 첫음절의 모음의 종류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부사형어미는 어간 첫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이면 '아'로, 그 이외의 모음이면 '어'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사형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절 모음 '으'가 삭제되어, 이 경우에 어간 첫음절의 모음이 부사형어미의 교체를 결정짓는 기준 모음이 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5)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일 때

a. 중부 : 느러(늘—增, 과 6a), 글거(긁—搔, 과 7b), 쓸러(쓸—掃, 죠 16b), 쓰너(끊—切, 관성 14b) ; 밧드러(받들—奉, 과 10b), 올나(올르+어登, 죠 6a), 굴너(굴르+어轉, 관성 13b), 일너(일르+어謂, 죠 19a), 고파(고프—飢, 관성 31b)
cf. 가다듬어(가다듬—整, 죠 10a)

b. 서북 : 늘거(늙—老, 코 45), 들어(듣—聞, 코 77) ; 올나(올르+어登, 코 38), 아파(아프—痛, 코 44), 불러(불르+어呼, 코 22), 슬퍼(슬프—哀, 누 12b)

c. 동북 : 느저(늦—晩, 사 84), 늘거서(늙—老, 교 13), 드러라(들—入, 교 23); 붇비러(부뜰〈=붙들〉—執, 교 62), 흔드러(흔들—搖), 어드버(어둡—暗, 사 107), 맨드러(맨들〈=만들〉—造, 교 31), 몰라서(몰르〈=모르〉+엇+어不知, 교 40), 말라셔(말르〈=마르〉+엇+어乾, 교 74), 불러셔(불르〈=부르〉+엇+어呼, 교 14), 흘러셔(흘르〈=흐르〉+엇+어流, 교 16), 기뻐(기쁘—喜, 사 70)
cf. 어드바(어둡—暗, 교 71), 맨드라(맨들—造, 교 16)

d. 서남 : 드러(듣—聞, 춘 48), 쓸어(끌—引, 춘 82), 쓴어(지고)(끊—斷, 춘 92), 쓰더(뜯—取, 박 390) ; 버스러도(버슬〈=벌〉—得利, 박 42), 가다듬어(가다듬

(10)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인 경우에, 중부와 동북 방언에서 각각 '가다듬아(가다듬—整, 죠 10a)'와 '어드바(어둡—暗, 교 71), 맨드라(맨들—造, 교 16)'와 같은 예가 발견된다. 이들 예들이 예외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어'로 실현되어야 할 부사형어미가 '아'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래 부사형어미는 '아'로서 모음조화를 몰랐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예는 그러한 잔재로 이해될 수 있다. 동북방언과 동남방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특히 동북방언에서의 예들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崔明玉(1992)를 참조할 것.

一整, 춘 94), 골나(골르+어選, 춘 80), 눌러(눌르+어壓, 춘 56), 길너(길르+어育, 춘 56), 밧바(바쁘一忙, 박 382)
cf. 밧버시니(바쁘+었+으니忙, 춘 50), 발너(발르一剔, 박 326)

그러나 서남방언은 이음절 어간으로서 어간 말음절이 개음절인데도, '밧버시니(바쁘—), 발너(발르—)'와 같은 예를 보인다. 동사 '바쁘—'는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밧바'로도 실현되므로, 그것들은 달리 설명할 여지가 없는 예외들이다. 서남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들은, 어간 말음절 모음이 '아'일 때에 부사형어미가 '여'로 실현되는 상당수의 예들(1d)과 함께, 주목에 값하는 바가 있다.

다음은 어간 말음절 모음 '어' 뒤에서 일어나는 부사형어미의 교체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논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간이 '으'로 끝다는 경우에 어간 말음절이 양순음으로 시작하는 일군의 동사들과 소위 '르' 변칙동사라고 하는 일군의 동사들에 대한 기저형의 문제이다. 이들 동사의 기저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음 또는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그 어간형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준어 '바쁘—(忙), 고프—(飢), 기쁘—(喜), 슬프—(哀)' 등과 '마르—(乾), 모르—(不知), 부르—(呼), 기르—(育)' 등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각각 '고푼다라(서북 : 누 8a), 기뿐(동북 : 사 95)/깃부물(중부 : 죠 14a), 슬푸게(중부 : 관성 33b)/슬픈(노릐)(서북 : 누15b)'와 '마른다(서북 : 코 25)/마르기(동북 : 사 78), 모르고/모루게(동북 : 사 124)/모롬메(서북 : 코 49)/모르난(듸)(서남 : 춘 48), 부르고(중부 : 과 10a)/부룬디(서북 : 코 5)/부루기(동북 : 사 36)/부르것다(서남 : 춘 86)'로 실현된다. 그런데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면 각각 '밧바(서북 : 누 24a, 서남 : 박 382)/밧버(서남 : 춘 50), 고파(중부 : 관성 31b), 슬퍼(중부 : 관성 30a, 서북 : 누12b)'와 '말나(서남 : 박 374)/말라(동북 : 교 74), 몰나(서남 : 박 406)/몰라(셔)(동북 : 교 13), 불너(중부 : 죠 21b, 서남 : 춘 86)/불러(셔)(서북 : 코 3, 동북 : 교 14), 길너(서남 : 춘 18)'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예를 표준어 '슬프—'와 '모르—'로 한정시키면,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실현되는 각 동사의 어간형은 각각 '슬푸—, 슳—'과 '모르/모루—, 몰ㄹ—'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미의 첫음운론적 환경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는 어간형 중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하여서는 다른 어간형의 도출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어 '슬프—'의 경우, '슬푸—'를 기저형으로 한다면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모음 '우'의 삭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슲—'을 기저형으로 한다면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의 '우'의 첨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음절 이상의 어간 동사로서 어간 말음절이 '자음+우'일 때에, 어간 말모음 '우'는 그대로 있거나 활음화하는 것이 논의 대상 방언의 음운현상이기 때문이다((7)의 예 참조). 한편 표준어 '모르—'의 경우에, '모르—'나 '모루—'를 기정형으로 한다면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모음 '으' 나 '우'의 삭제화 'ㄹ'의 첨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몰ㄹ—'을 기저형으로 한다면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 'ㄹ'의 삭제와 '으' 또는 '우'의 첨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어미의 첫음운론적 환경에 따라서 어간이 달리 재구조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현상을 실현하는 동사의 어간은 하나가 아니라,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통합하는 것과 부사형어미에 통합하는 것 두 개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즉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은 각각 '슬푸—'와 '모르—/모루—'이지만,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은 각각 '슬프—'와 '몰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몰르—'는 '몰ᄅᆞ—'에 비어두 음절에서의 'ᄋᆞ>으' 규칙이 적용된 것이며, '슬푸—'와 '모루—'는 각각 '슬프—'와 '모ᄅᆞ—'에 원순모음화규칙이[11] 적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동사에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인 것은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간 말음절 모음 '어' 뒤에서 일어나는 부사형어미의 교체를 보면, (6)에서와 같이, 네 방언에서,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현된다. 다만 동북방언에서는 '무서바(무섭—), 무거바(무겁—), 조심스러바(조심스럽—)' 등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음절 이상의

(11) 여기서 원순모음화규칙은 순음에 의한 것과 원순모음에 의한 것을 말한다.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이 겪은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에 대하여는 각각 崔林植(1984:106-109), 崔明玉(1985b:726-29)와 郭忠求(1991:238-39)을 참조할 것.

어간으로서 어간말이 'ㅂ'인 경우에는 어간 말음절 모음이 '어'라고 하더라도 부사형어미는 언제나 '아'로 실현된다(郭忠求, 1991:102).[12]

(6) 어간 말음절 모음이 '어'일 때

a. 중부 : 더러(덜—減, 과 2b), 업셔(없—無, 과 1a), 먹어도(먹—食, 죠 44a); 일커러셔(일킳—稱, 과 4a),

b. 서북 : 얼것습데(얽—網, 코 82), 셔서(셔—立, 누 8b)

c. 동북 : 어더(얻—得, 회 137), 거러(라)(걹—步, 회 26), 너머(넘—越, 사 132)

cf. 무서바(무섭—怯, 사 4), 무거바(무겁—重, 교 39), 조심스러바(조심스럽—操心, 교 40)

d. 서남 : 먹어도(먹—食, 춘 68), 셕거(섞—混, 춘 20), 너어(넣—入, 춘 20), 버셔(벗—脫, 박 328), 거러(걷—步, 춘 48)

어간 말음절 모음이 '우'인 경우에, 부사형어미의 실현은 그 조건이 다소 복잡하다. (7)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부사형어미의 실현 향상은 통합하는 어간의 음절수와 어간 음절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어간이 일음절인 경우에, 부사형어미는 어간 음절의 구조와 관계 없이 언제나 '어'로 실현된다. 이 현상은 네 방언에서 일치한다.

(7) 어간 말음절 모음이 '우'일 때

a. 중부 : 굽어(굽—曲, 과 7a), 누엇더니(눕—臥, 과 12a), 불어(붇—增, 관성 30b), 부어(붓—腫, 죠 15b), 두어(두—置, 죠 5a) ; 베푸러(베풀—施, 죠 27b), 거두어(거두—收, 죠 13a), 두려워(두려우〈=두렵〉—恐, 죠 10b), 부러워(부러우〈=부럽〉—羨, 죠 37a)[13]

b. 서북 : 눅어(눅—廉, 코 55), 두워(두—置, 누 16b), 주워(주—與, 누 2a) ; 가무라(가물—旱, 코 24), 기우러(기울—傾, 코 69), 갓추왓다(가추—備, 누 31b), 말무야(말무〈=말미암〉—由, 누 10b, 13b, 42b), 사구야(사귀〈=사귀〉—交, 누 34b), 모두와(모두〈=모으〉—聚, 요묵 36b)

cf. 모두우라(모두+으라, 요묵 36b), 깨와(깨우—使覺, 누 17b), 채와(채우—使滿, 누 10a), 거두워(거두—收, 누 6b), 멋추워(머추〈=멈추〉—止, 누 9b), 셔워싸(셔우〈=세우〉—使立, 누 14a), 가리워(가리우—遮, 코 76), 무거워(무거우〈=무겁〉—重, 코 36), 무셔워(무셔우〈=무섭〉—怯, 누 3a)

---

(12) 동북 방언과는 달리, 중부, 서북, 서남 방언에서 이들 동사는 'ㅂ'변칙동사로 존재한다. 이들 동사는 (7)에서 다루어진다.

(13) 'ㅂ'변칙동사의 어간 중에서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는 것을 'X우—'라고 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료 (2)(어간 말음절이 '오'일 때)의 논의를 참조할 것.

c. 동북 : 우러(울—泣, 사 137), 구버쇼(굽—曲, 교 7), 무러(물—償, 회 139) ; 주어셔(주+엇+어與, 교 37), 저무러(저물—晩, 회 311), 가촤(가추—備, 화 95), 살과(살구〈=살리〉—使生, 교 37), 둘쳐(둘추〈=들추〉—搜, 교 42)
cf. 둘추기(표 18), 떨궈(떨구〈=떨어뜨리〉—使落, 사 74), 떨구어셔(떨구—使落, 교 46), 세워(세우—使立, 교 65), 데워(데우—使溫, 교 24), 다티워(다티우〈=건드리〉+어觸, 교 57), 딸기워(딸기우〈=쫓기〉+어被追, 교 45)

d. 서남 : 구버(굽—曲, 춘 64), 누어(눕—臥, 춘 24), 무더(묻—埋, 춘 60), 물어(물—咬, 박 350), 두엇다(두—置, 춘 98), 쥬어(주—與, 춘 44) ; 마츄와(마추〈=맞추〉—契, 춘 86), 장과(장구〈=잠그〉—閉, 춘 66), 속구와(속구〈=솟구〉—使湧, 춘 82), 모와(모우—聚, 토 282)
cf. 모우더니(토 278), 둣거워(두꺼우〈=두껍〉厚, 박 330), 우슈워(우슈우〈=우습〉—笑, 춘 86), 붓그러워(부끄러우〈=부끄럽〉—愧, 춘 24), 무셔워(무셔우〈=무섭〉—怯, 박 418), 말이워(말리우〈=말리〉+어使乾, 박 388)
cf. 엿쥬와라(여쭈—誥, 춘 82)

그러나 어간이 이음절 이상으로 되면, 부사형어미는 단순히 '어'로만 실현되지 않고 어간의 구조에 따라 '아'나 '어'로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7)의 예에서 보듯이, 부사형어미는 '가물—(旱), 가추—(備), 살구—(使生), 속구—(使湧), 모두—(聚) 또는 모우—(聚)' 등과 같이, 이음절 어간의 경우에 어간 첫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이면 '아'로, '거두—(收), 기울—(傾), 베풀—(施), 세우—(使立)' 등과 같이, 어간 첫음절의 모음이 '아, 오' 이외의 모음이면 '어'로 실현된다. 한편 '두려우—(恐), 가리우—(遮)'와 같은 삼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先語幹末音節의 모음 즉 어간의 끝에서 두번째 음절의 모음이 어떤 류의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형어미의 교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어간 말음절 모음이 '우'인 이음절 이상의 어간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先語幹末音節의 모음 종류에 따라 '아'나 '어'로 교체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우'일 때에, 부사형어미는 先語幹末音節의 모음이 '아, 오'이면 '아'로, 그 이외의 모음이면 '어'로 교체된다고 하겠다.

한편 어간 말음절 모음이 '이'인 경우에는, (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서북방언에 존재하는 특수 현상을 제외하면,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현된다. 서북방언에 존재하는 특수 현상이란 것은 이음절 어간으로서 어간 말음절이 개음절일 때에 한하여, 부사형어미는 어간의 첫음절 모음의 종

류에 따라 교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어간의 첫음절 모음이 '(아), 오' 이면 '아'로, 그 외의 모음이면 '어'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들 동사들의 어간 말음절 '이'는 전 시기에 j계 하향 이중모음의 j가 음절화함으로써 형성된 것인데, 이 경우에 부사형어미의 교체는 중세국어에서 어간 말음절이 개음절로서 핵모음 '아, ᄋᆞ, 오'를 가진 j하향 이중모음 뒤에서 실현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주목된다.[14]

(8) 어간 말음절 모음이 '이'일 때

a. 중부 : 빌어(빌ㅡ借, 과 5b), 잇셔(있ㅡ在, 과 1b), 비여(비ㅡ空, 죠 1a) ; 모질어도(모질ㅡ暴, 과 7a), 가져(가지ㅡ持, 죠 34a), 즐겨(즐기ㅡ樂, 죠 25b)

b. 서북 : 이서(잇ㅡ有, 코 34), 실엇다(싣ㅡ載, 코 37) ; 마셧슴메(마시ㅡ飮, 코 14), (못)견뎌(견디ㅡ忍, 코 84), 걸녀(걸리ㅡ使步, 코 42), 네겨(네기〈=여기〉ㅡ想, 누 14a) ; (글)보야(주우)(보인ㅡ學, 코 9), 보야(보이ㅡ使示, 누 42a), 모야(모이ㅡ集, 누 10b), (불)푸여라(푸이ㅡ燃, 코 18), (차)머여라(머이ㅡ繫, 코 36)
cf. 보여라(보이ㅡ學, 코 2)

c. 동북 : 치버(=추워)(칩ㅡ寒, 교 55), 기퍼(깊ㅡ深, 사 68), 시러(싣ㅡ載, 사 101) ; 모디러(=살쪄)(모딜ㅡ肥, 사 85), 고톄〈=고쳐〉(고티ㅡ訂, 희 157), 대례(대리ㅡ帶同, 희 81)

d. 서남 : 일거(읽ㅡ讀, 춘 60), 집어(집ㅡ取, 춘 92), 씨셔(씻ㅡ洗, 춘 20), 처(치ㅡ打, 춘 44) ; 너밀어(내밀ㅡ出, 춘 84), 시켜(시키ㅡ使, 춘 90), 던져(던지ㅡ投, 춘 50), 너려(내리ㅡ降, 춘 56)

끝으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이중모음일 때에는, (9)에서와 같이,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부방언과 서북방언의 자료에서 각각 '되야(되ㅡ化)'와 '되야넌야(코 12)' 등 '아'로 실현되는 예가 하나씩 발견되지만, 그것들은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9) 어간 말음절 모음이 이중모음일 때

a. 중부 : 희여(희ㅡ白, 관성 10a), 뛰여(뛰ㅡ走, 과 10a), 되여(되ㅡ化, 죠23b) ; 알외여(아뢰ㅡ誥, 죠 17b, 관성 9a)
cf. 되야(되ㅡ化, 죠 16b)

b. 서북 : 되여(되ㅡ爲, 누 1b, 50a), 되엿슴메(되ㅡ爲, 코 12)
cf. 되야넌야(코 12)

(14) 중세국어에서 어간과 통합하는 부사형어미의 교체에 대하여는 李崇寧(1949: 86-89)를 참조할 것.

c. 동북 : 뒈(뒤[t'uj]—走, 사 110), 혜셔(쥐[tsuj]—執, 사 10)
cf. 뒤기[t'ujgi](사 5), 쥐기[tsujgi](사 5)
d. 서남 : 되여시니〈=되었으니〉 (되—爲, 춘 66), 아뢰엿졔(아뢰—誥, 춘 94)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후기의 중부, 서북, 동북, 서남의 네 방언을 통하여 부사형어미의 교체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아'일 때에,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아'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북방언은 이 경우에 하나의 예외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세 방언은 그 경우에, 그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외를 보인다. 먼저 중부방언에서의 예외는 동사 '앉—, 찾—, 하—'와 통합할 때에 발견된다. 이들 동사와 통합하면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현되는데, 그 중 동사 '앉—'과 통합할 때에는 언제나 '어'로 실현되고 다른 두 동사와 통합할 때에는 '아'로 실현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서북방언에서의 예외는 동사 '앉—, 하—'와 통합할 때에 발견된다. 이 때에 부사형어미는 동사 '앉—'과 통합하면 언제나 '어'로 실현되지만, 동사 '하—'와 통합하면 '아'로도 실현된다.[15] 끝으로 서남방언에서의 예외는 그 수가 상당히 많아 단순한 예외라기 보다는 예외 속에서 규칙을 이룰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오'일 때에,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아'로 실현된다. 이러한 사정은 방언적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셋째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에'나 '애'일 때에, 중부, 서북, 서남 방언의 경우,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형된다. 그러나 동북방언의 경우에 부사형어미는 개음절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어간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하기 때문에, '아'나 '어' 중 어느 것으로 실현되는지 알 수 없다. 단 폐음절로 끝나는 어간 으로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애'일 때에,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가 '아'로 실현되는 것은 동북방언이 다른 방언과 구별되는 점이다

넷째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나 '우'일 때에는 어간 말음절의 구조와 어간 음절수에 따라 부사형어미의 실현은 차이를 보인다. 즉 어간이 폐음절로 끝나면 부사형어미는 어간 음절수에 관계 없이 '어'로 실현된다. 그러나 어간이 개음절로 끝나면, 부사형어미는 일음절 어간 뒤에서는 '어'로,

(15) 이 사실은 崔明玉(1985b:720-21)에서 지적되었음.

이음절 이상의 어간 뒤에서는, 先語幹末音節의 모음이 '아'나 '오'이면 '아'로, 그 외의 모음이면 '어'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네 방언에서 일치한다. 다만 서남방언은 '바쁘—(奔)'와 '바르—(剔)' 뒤에서 부사형어미가 '어'로 실현되는 예외를 보인다(5c).

다섯째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어', '이'나 이중모음일 때에, 부사형어미는 '어'로 실현된다. 이 역시 방언간에 차이가 없다. 다만, 서북방언은 '이'로 끝나는 이음절의 어간으로서 어간 말음절이 개음절일 때에, 부사형어미는 어간 첫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이면 '아'로, 그 외의 모음이면 '어'로 실현되는 특별한 현상을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19세기 후기국어 시기에 서남방언을 제외한 세 방언은 부사형어미의 교체에서 일치를 보이며, 그 일치는 그 시기에 아직 그들 방언에서 부사형어미가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한다.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 대각선체계였고 그 당시에 모음조화규칙이 대각선체계를 바탕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金完鎭, 1978)을 바탕으로 할 때에,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부사형어미는 어간 말모음이 양성모음 '오, ᄋᆞ, 아'이면 '아'로, 음성모음 '우, 으, 어'이면 '어'로의 조화를 보였다. '이'는 중립모음이라고 하지만,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에 한하여서는 음성모음에 속하는 것이었다.

'ᄋᆞ'의 소멸로 인한 모음체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중모음의 單母音化가 일어남으로써, 양성모음의 부류에 속해 있던 '애[aj]'와 '외[oj]'는 단모음 '애[ɛ]'와 '외[ö>wɛ 또는 we]'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이들 단모음은 음성모음으로 행사하는 전설 비원순 고모음 '이'의 계열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후의 근대국어에서 부사형어미는 어간 말모음이 '오, 아'이면 '아'로 그 밖의 모음이면 '어'로의 조화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개음절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일 때에는, 그리고 비어두 위치에서 '오>우'의 변화가 일어난 뒤에는 어간 말음절 모음이 '우'일 때에는, 先語幹末音節 모음이 부사형어미의 조화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규칙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후기국어 시기에 중부방언과 서북방언 그리고 동북방언이 보여주는 부사형어미의 교체는 그러한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므로 19세기 후기국어 시기에는 부사형어미가 여전히 그들 방언에서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부방언과 서북방언에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를 의심하게 하는 예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서남방언이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에 대하여 보여주는 부정적인 예들의 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후기국어 시기에 서남방언에서는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소멸되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앞의 논의에서, 특히 부사형어미가 '아'로 실현될 것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모음조화를 준수하지 않는 예들이 서북방언과 중부방언 그리고 서남방언의 순서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과 (5)). 이것은 부사형어미에 적용되던 모음조화규칙의 소멸이 서남방언으로부터 북쪽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현대국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방언에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사형어미의 교체에 관한 한, 19세기 후기국어는 현대국어로 이행되는 전환기 국어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다.

3. 滑音化와 滑音添加

활용에서 전설 고모음이나 원순모음으로 끝나는 서술어 어간과 부사형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형태소 경계를 전후하여 연속되는 두 모음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음운론적 과정이 예상된다. 하나는 어간 말모음이 활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간 말모음과 동일한 자질값을 가진 활음이 형태소 경계에 첨가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3.1. 전설 고모음의 j화와 j첨가

이 시기의 국어에서 전설 고모음의 j화는 일반적으로 어간이 전설 고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10aㄱ-dㄱ, cㄴ)의 예들에

서 확인된다. 그러나 중부방언이나 서남방언에서는, (10aㄴ, dㄴ)과 같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어간 말모음 '이'가 j화하지 않은 예들도 발견 된다. 그러한 語形들은 아주 느린 속도로 말할 때나 어간을 분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어형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10)

a. 중부

ㄱ. 쳐(치+어打, 과 11a), 쳐서(치+어서攻, 관성 34a) cf. (범)친(거와)(관성 28b) ; 너겨(너기+어惟, 과 2b), 박엿더니(바기+엇+더니使印, 과 13a), 살펴(살피+어省, 죠 8b), 놉혀(노피+어使高, 관성 31a), 직혀(지키+어守, 관성 12a), 나려(나리+어降, 관성 20a), 어려셔(어리+어셔幼, 죠 16b), 두다려(두다리+어敲, 죠 21b) 등.

ㄴ. 직키여(지키一守, 관성 22a), 짓발피여(지빨피〈=짓밟히〉一被踏, 과 7a), 누리여(나리一降, 죠 5b), 앗기어(아끼一惜, 죠 34b) 등.

ㄷ. 비여(비+어空, 죠 1a) cf. 뷘(듯ᄒᆞ고)(죠 28b) ; 지어(짛〈=짓〉+어作, 죠 6a), 지엇다(짛+엇+다作, 관성 15a) cf. 짓지(죠 31b), 이어(잍〈=잇〉+어連, 죠 26b) 등.

b. 서북

ㄱ. 뎌(디+어落, 코 32), 텨(티+어打, 누 41a), 걸려(주시)(걸리+어使步, 코 42), 마셔슴메(마시+엇+음메飮, 코 14), 만져(보시)(만지+어撫, 코 75), 시겨(시기+어使, 코 51), 노엿(넌디라)(노이+엇被置, 요 22a), 굽펴(굽피〈굽히〉+어使曲, 요 36a), 푸여라(푸이+어라燃, 코 18) cf. 푸이고(코 11) 등.

ㄴ. 비비여(비비+어鑽, 누 11b), 딕키여(딕키+어守, 요 3b) 등.

ㄷ. 지어(누 47b)/지여(짛〈=짓〉+어作, 코 39) cf. 짓고쟈(코 19).

c. 동북

ㄱ. 체셔(치+어셔養, 교 49), 톄(티+어打, 교 51), 게에(기+어匍, 사 11) ; 고톄(고티〈=고치〉+어改, 회 157), 메계라(메기〈=먹이〉+어라, 화 115), 니펴셔(니피〈=입히〉+어셔使着, 교 58), 대례(대리〈=데리〉+어帶同, 회 81), 댱계(댱기〈=다니〉+어行, 교 16); 자빠뎨(자빠디〈=자빠지〉+어倒, 교 8), 두두레(두두리〈=두드리〉+어敲, 교 20) 등.

ㄴ. 뗘어(뗳〈=찧〉+어搗, 회 143), 져어(짛+어作, 교 29) 등. cf. 지키(짛+기, 사 114)

d. 서남

ㄱ. 쳐(보시오)(치+어打, 춘 44), 쎠서(찌〈=끼〉+어서揷, 춘 96), 져(지+어負, 박 328) ; 닷쳐(다치〈=닫히〉+어被閉, 춘 92), 단여(다니+어行, 춘 24),

기려(기리〈=그리〉+어畵, 춘 52), 달려(달리+어突, 춘 96), 당겨(당기+어引, 박 366), 동여셔(동이+어셔卷, 박 370), 쑤여(꾸미+어飾, 박 338), 얼여(어리-幼, 박 380), 뻔덕여(뻔더기〈=번득이〉-閃, 박 372), 버러우나(버리+었棄, 박 378), 노여(우나)(노이〈=놓이〉+엇被置, 박 368), 뷔벼(비비+어鑽, 춘 84) 등.

ㄴ. 다치엿고(다치-被閉, 춘 64), 당기여(당기-引, 박 366), 비비여셔(비비-鑽, 춘 56) 등.

ㄷ. 기여(기+어匐, 춘 74); 지어(춘 60, 박 398)/지여(춘 88, 박 366)(짛+어作), 씨여(짛-搗, 박 404) 등.

먼저 규칙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 예들 또는 그러한 예들과 어간 말음절의 구조(X피-, X려-, X기-)가 동일한 것들이 해당 방언에서 어간 말모음 '이'의 j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10aㄱ, dㄱ)이 그에 해당하는 예라고 하겠거니와 이 사실은(10aㄴ, dㄴ)의 예들이 일반적인 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예외도 아님을 말해준다. 특히 중부방언은 중세나 현대에 걸쳐서, 그리고 서남방언은 현대에, 동일한 조건에서 어간 말모음 '이'의 j화를 일반적으로 실현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자연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J. Ross(1877)의 서북방언과 러시아정교선교협회(1902-04)의 동북 방언은 그 경우에 어간 말모음 '이'의 j화를 예외 없이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10aㄴ, dㄴ)의 예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로 끝나는 어간과 부사형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간 말모음 '이'가 j화 하는 것이 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匐), 비-(空), 피-(發)'와 같이, 전시기의 이중모음 '의[ij]'의 변화에 의한 어간 말모음 '이'의 j화 문제이다. 이들 동사가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면, 중부와 서남방언에서는 j화 대신 j첨가가 일어 난다(10aㄷ, dㄷ). 다만 서북방언의 경우는 동사 '비-, 피-'는 j의 음절화에 의하여 '븨->부이-, 픠->푸이-'로 되었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에 해당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동북방언은 (10cㄱ)에서 보듯이, 그 경우에도 j화를 보인다.

다른 하나는 공시적으로 어간 말자음의 삭제 과정을 거친 다음인 중간 단

계의 어간 말모음 '이'의 j화 문제이다. 그 경우에 이 시기의 자료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간 단계의 어간 말모음 '이'가(10aㄷ, bㄷ, dㄷ)에서와 같이, j화 하지 않는 것과, (10cㄴ)에서와 같이, j화하는 것이다. 이 중 j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j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j화하는 경우에는 그 앞의 자음이 'ㅈ, ㅊ, ㅉ, ㅅ, ㅆ'이면 j가 삭제될 뿐, 모음축약(jə→je)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이 '이'로 끝나는 어간과 부사형어미가 통합할 때의 음운론적 과정과 다르다.

이 시기의 국어는 j화와는 달리 j첨가를 보이기도 한다. j첨가는 일반적으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에, 애, 외, 위' 등인 동사나 이중모음 '의'의 변화에 의한 동사 '기ㅡ(匐), 비ㅡ(空), 피ㅡ(發)'와 부사형어미와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현상은 모든 방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부와 서북 그리고 서남방언에서만 일어난다. (11a, b, dㄱ)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거니와 (11c)는 이 현상이 동북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을 알려준다. 동북방언은 그 경우에 j첨가 대신 부사형어미의 완전순행동화를 보인다. 그리고 (11dㄴ)의 예들은 당시의 서남방언에서도 그 경우에 부사형어미의 완전순행동화가 일반적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11)

a. 중부 : 메여(메+어擔, 관성 32a), 닉여(내+어出, 과 12b), 씨여(깨+어覺, 과 12a), 킈야(캐+어야採, 죠 2a), 쎄여(빼+어秀, 관성 33a), 되여/야(되+어爲, 죠 23b/죠 16b), 뵈여(뵈+어使示, 죠 18a), 뛰여(뛰+어走, 죠 35a); 굿세여(굳세+어健, 관성 33a), 지닉여(지내+어過, 관성 27b), 달닉여(달래+어撫, 죠 18b), 모듸여(모듸+어被集, 과 4b), 소귀여(사귀+어交, 삼 25a); 비여(비+어空, 죠 1a) 등.

b. 서북 : 몌여(몌+어分離, 누 50b), 빼여(빼+어拔, 누 35b), 내여(내+어出, 코 20), 되여/야(되+어爲, 코 12), 뛰여(뛰+어跳, 누 8a), 업데여(업데+어伏, 누 10a), 보내여(보내+어送, 누 8b) 등.

c. 동북 : 메에(메+어擔, 사 86), 께에(께〈=꿰〉+어貫, 사 15), 세에(세〈=비싸〉+어高價, 회 240), 내애(세우기)(내+어出, 사 33), 가래셔(가래+어셔選, 교 47) cf. 가래기(가래+기, 사 15) 등.

d. 서남

ㄱ. 씨여(지고)(깨ㅡ破, 춘 70), 되여쎠든(되+었爲, 박 396), 기여(기ㅡ匍, 춘 74) ; 싹기여라(까끼〈=깎이〉ㅡ使削, 춘 88), 업듸여(업디ㅡ伏, 박 382), 쌋이여서(싸이ㅡ被包, 춘 48), 뗄이여(떨리ㅡ被慄, 춘 60), 법이엿다(법이+었

法, 춘 68) 등.

ㄴ. 세졋우나(깨+어破, 춘 84), 히도(해〈=하〉一爲, 박 348), 권히라(권해+어勸, 춘 86), 겸힛시니(겸해〈=겸하〉+었兼, 춘 60), 만히도(만해〈=만하〉一多, 박 416) 등.

3.2. 圓脣母音의 w化와 w添加

원순모음의 w화는 어간 말음절이 '오'나 '우'로 끝나는 어간과 부사형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자료는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은 (12aㄱ, bㄱ, d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순모음의 w화는 모두 음절의 초성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두—, 보—, 거두—' 등과 같이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인 경우에는 원순모음의 w화가 불가능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12)

a. 중부

ㄱ. 와(오+아來, 죠 11a) ; 세워(세우+어使立, 과 3b), 일워(이루+어成, 죠 4a), 피워(피우+어燃, 죠 15b), 것워(거두+어收, 죠 32b), 난와(나누+어分, 과 4b), 드리워(드리우+어垂, 과 2b) 등.

ㄴ. 두어(두+어置, 죠 5a), 조아(좋+어好, 죠 23a), 보아(보+어示, 관성 27b); 일우어(이루+어成, 과 4b), 거두어(거두+어收, 죠 13a) 등.

ㄷ. 보왓기로(보+엇+기로示, 삼 11a), 보와(보+어示, 남궁 13a) cf. 보고(삼 11a), 닷토와(다토+어競, 과 3a), 갓초와(가초一備, 남궁 1a) 등.

b. 서북

ㄱ. 와서(오+어서來, 코 77), 채와(채우+어使滿, 코 76), 깨와(깨우+어使覺, 누 17b), 가리워(가리우+어遮, 코 76), 앗기웟슴(앗기우+아被奪, 코 84) 등.

ㄴ. 주워(주+어與, 누 2a), 두워(두+어置, 누 16b), 보와라(보+어라示, 코 77), 거두워(거두+어收' 코 11, 누 6b), 나추와(나추+어使低, 코 58) 등.

ㄷ. 도와(돕+어好, 코 78), 노와(놓+어置, 누 5a), 부워(붓+어注, 누 23b) 등.

c. 동북

ㄱ. 파(디기〈=지기〉)(꼬 + 어捻, 사 11), 배와라(배우〈=보이〉 + 어라使示, 회 442), 바꽈(바꾸+어換, 교 63), 가촤들(가추〈=갖추〉+어라具, 회 95), 다티워(다티우〈=건드리〉+어觸, 교 57), 딸기워(딸기우〈=쫓기〉+어被追, 교 45), 갈치와라(갈치우〈=가르치〉+어라敎, 교 32) 등.

ㄴ. 뛔(내리기)(뛰[t'uj]+어跳, 사 110), 췌셔(쥐[tsuj]+어셔執, 사 10) 등.

ㄷ. 모다(노쏘〈=넣소〉)(모두+어集, 회 124), 바쏘〈=보았소〉(브+었+소示, 교

8), 가다(녀쿠〈=넣고〉)(가두+어囚, 교 18), 도타셔(도투〈=다투〉+어爭, 교 16) 등.

ㄹ. 됴아(둏〈=좋〉+어好, 사 49), 노와(놓+어置, 사 75), 노아라(놓+어라置, 교 36) 등.

d. 서남

ㄱ. 와셔(오+어셔來, 춘 56), 모와(모우+어集, 박 376), 쓰와(*솨)나〈=싸웠니〉(싸우+었+나戰, 박 410), 논와(노누〈=나누〉+어分, 박 416), 말이워(말리으〈=말리〉+어使乾, 박 388) 등.

ㄴ. 보와(보+어示, 박 406, 춘 76), 쑈와(꼬+어捻, 박 398) ; 솟구와(솟구+어使湧, 춘 82), 갓구와(가꾸+어培, 춘 2), 마츄와(맞추+어合, 춘 86), 닷토와(다토+어爭, 박 330) 등.

ㄷ. 두어라(두+어라置, 춘 20), 쥬엇싸가(주+었+다가與, 박 406) ; 노와(놓+어置, 춘 84, 박 378), 죠와(좋+어好, 춘 62, 박 406), 부어(붓〈=붓〉+어注, 춘 86) 등.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 '일워(成), 것워(收), 난와(分)' 등의 예를 보면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w화가 가능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룰지라(成, 과 5a)/이루기(이루기, 죠 29b), 거두고 (과 4a)/거두는(죠 32b), 난홀(것)(分, 과 4b)/는호고(죠 8b)' 등에서 그들 동사의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원순모음의 w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국어 표기법의 전통을 알지 못한 외국인에 의하여 轉寫된 동북방언 자료에서 뒷받침될 수 있다. (12c ㄱ)에서 볼 수 있는 '꽈(꼬+어), 가촤라(가추+어라)' 등의 예들은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이라도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원순모음의 w화가 가능하였음을 알려준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당시의 중부방언에서 일반적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정밀한 연구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문헌 자료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의 자료는 어간 말음절이 원순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원순모음의 w화를 보인다. 그렇지만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인 경우에는 부사형어미와의 통합

에서 일반적으로 w의 첨가를 보이며 임의적으로 그대로 실현되기도 한다(12bㄴ, d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19세기 후기국어에서의 활음화와 활음첨가 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로, 어간말이 '이'로 끝나면, 이 '이'는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j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의 경우, ㉮ '기ㅡ(匐), 비ㅡ(空), 피ㅡ(發)' 등과 같이, 이중모음 '의'[ij]의 단모음화에 의한 어간 말모음 '이'나, 중부방언, 서북방언, 서남방언의 경우, '짛+어→짂+어(作), 찧+어→찐+어(搗)' 등과 같이, ㉯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어간 말모음 '이'나 ㉰ 어간 말모음 '에, 애, 외, 위'와 부사형어미가 통합할 때에는 그 사이에는 j가 첨가된다. 이들 방언과는 달리 동북방언에서는, ㉮와 ㉯의 경우에, 어간 말모음이 j화하며, ㉰의 어간말 '에, 애'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앞 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둘째로, 어간 말음절의 구조가 '원순모음'만으로 이루어지면, 이 원순모음은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w화한다. 그러나 어간 말음절의 구조가 '자음+원순모음'이면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방언에 따라 음운론적 과정에 차이를 보인다. 즉 그 경우에 동북방언에서는 원순모음이 w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와 반대로 서북방언에서는 w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중부방언에서는 임의적으로 원순모음이 w화하거나 원순모음과 부사형어미 사이에 w가 첨가되며 서남방언에서는 원순모음이 w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간이 일음절일 때에는 음운론적 과정 없이 그대로 실현되기도 한다.

끝으로 19세기 후기국어가 가진 위와 같은 활음화와 활음첨가 현상이 國語史에서 차지하는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기로 하자. 후기 중세국어에서, 어간말의 '이'가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면, '이'의 j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형태소경계에 j가 첨가되기도 한다(李崇寧, 1958/54:400-407, 宋喆儀, 1987:338-39). 이러한 사실은, 이 章의 시작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임의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다. 그런데 19세기 후기국어에서는 그 경우에 어간말의 '이'가 j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후기 중세국어에서 19세기 후기국어로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그런데 19세기 후기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나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어간 말모음 '이'나 '에, 애'가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면, 형태소 경계에 j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동북방언에서는 그 경우에 어간 말모음 '이'가 j화하며, 어간 말모음이 '에, 애'이면 부사형어미는 어간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그 경우에 어간 말모음이 '이'이면, 방언에 따라 어간 말모음 '이'가 활음화하거나(중부, 서북, 동북방언), 부사형어미가 어간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하거나(동남방언) 음운론적 과정 없이 그대로 실현되거나(서남, 제주방언) 한다. 그리고 어간 말모음이 '에, 애'이면 거의 모든 방언에서 부사형어미가 어간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이것은 19세기 후기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한편 후기 중세국어에서 어간말의 원순모음이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면, 어간 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원순모음의 w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였다. 즉 어간 말음절이 원순모음만으로 이루어지면, 원순모음의 w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이면 원순모음의 w화는 일어나지 않는다(宋喆儀, 1987). 그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는 w의 첨가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간 말음절이 원순모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간과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보여주는 후기 중세국어에서의 음운현상은 19세기 후기국어를 거쳐서 현대국어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19세기 후기국어에서는 어간 말음절의 구조가 '자음+원순모음'이면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원순모음이 w화하거나 원순모음과 부사형어미 사이에 w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후기 중세국어에서 19세기 후기국어로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그 경우에 원순모음이 w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인 어간과 부사형어미가 통합할 때에, w를 첨가하는 대신 원순모음을 w화하는 쪽으로 단일화시키는 음운현상은 19세기 후기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따라서 활음화와 활음첨가 현상에 관한 한, 19세기 후기국어는 현대국어로 이행되는 전환기 국어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다.

4. 語幹과 語尾의 母音削除

이 章에서 논의되는 것은 語幹과 語尾의 母音削除이다. 語幹의 母音削除는 다시 語幹末 '으'의 削除와 '아'나 '어'의 削除로 구분되며, 語尾의 母音削除는 語尾의 첫음절 '으'의 削除이다.

4.1. 語幹末 '으'의 削除

어간말 '으'의 삭제란 동사의 어간 말모음 '으'가 부사형어미 '아X'와의 통합에서 삭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요인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3)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방언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

(13)

a. 중부 : 써셔(쓰+어서書. 관성 6a) cf. 쓰면(관성 12b), ᄯᆞ라(따르+어隨, 관성 22a) cf. ᄯᆞ르고(관성 21b), 슬퍼(슬프+어哀, 관성 30a) cf. 슬푸게(관성 33b), 불너(불르+어呼, 조 21b) cf. 부르고(조 10a) 등.

b. 서북 : 써(주시)(쓰+어書, 코 7) cf. 쓰고(코 7), 커서(크+어서大, 코 56) cf. 크다(코 28), 아파(아프+어痛, 코 44) cf. 아푸고(아푸ㅡ痛, 코 74), 불러(불르+어呼, 코 11) cf. 불운디(부루ㅡ呼, 코 14) 등.

c. 동북 : 써(쓰+어書, 사 79) cf. 쓰기(쓰ㅡ書, 사 79), 떠(뜨+어浮, 사 73) cf. 뜨기(뜨ㅡ浮, 사 73), 기뻐(하기)(기쁘+어喜, 사 95) cf. 기뿐(김이)(기뿌ㅡ喜, 사 95), 몰라셔(몰르+었+어不知, 교 14) cf. 모룬다(모루ㅡ不知, 교 41) 등.

d. 서남 : 커(크+어大, 박 410) cf. 크니(크ㅡ大, 박 346), 써(너이니)(쓰+어用, 박 406) cf. 씨며(씨ㅡ用, 박 372), ᄯᆞ라(오나)(따르+어隨, 박 406) cf. 딸은(기게)(따르ㅡ隨, 박 380), 밧바(바쁘+어忙, 박 382) cf. 밥분(놀보)(바뿌ㅡ忙, 박 398), 불너(불르+어呼, 박 328) cf. 부르더니(부르ㅡ呼, 박 370) 등.

4.2. 語幹末 '아, 어'의 削除

어간말 '아, 어'의 삭제란 어간 말모음 '아'나 '어'가 부사형어미 '아X'와의 통합에서 삭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도 어간말 '으'의 삭제와 마찬가지로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요인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14)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방언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

(14)

a. 중부 : 가셔(가+어서去, 죠 14b), ᄂᆞ셔(나+어서生, 죠 12a), 낫타나(나타나+어現, 죠 38a) cf. 나타나는(관성 23a), ᄊᆞ셔(싸+어서包, 관성 33b) cf. ᄊᆞ니(싸一包, 관성 31a) 등.

b. 서북 : 타(마시고(타+어混, 코 80), (나ᄀᆞ)타두(됴코)(타+어두乘, 코 31), 떠낫슴마(떠나+엇+슴마離, 코 33), 셔서(셔+어서立, 누 8b), (밧틀)샷더니(사+엇+더니買, 투 31b) 등.

c. 동북 : 가따(가+었+다去, 교 22) cf. 가는(사람)(가一去, 사 82), 셔쏘(셔+었+소立, 회 407) 등.

d. 서남 : 가서(가+어서去, 춘 68) cf. 가거라(가一去, 춘 64), 나ᄭᅮ나(나+었+구나出, 춘 94) cf. 나니(나一出, 춘 50), ᄊᆞ셔(싸+어서包, 박 396) cf. ᄊᆞ고(싸一包, 박 400), ᄌᆞ도(자+어도寢, 박 346) cf. ᄌᆞ고(자一寢, 박 346) 등.

표기를 중심으로 하면, 어간 말모음 '아, 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 '아'가 삭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은, (14a)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간 'ᄂᆞ一'(生)에 어미 '一어서'가 통합한 어형이 'ᄂᆞ셔'로 표기된 데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ᄋᆞ'가 이 시기에는 음소가 아니라 '아'를 표기하는 일종의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3.1**과 **3.2**와 **4.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나 '오, 우'나 '으'로 끝나는 어간이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부사형어미의 '어'는 그대로 실현되지만, 어간 말모음은 활음화하거나 삭제되는 사실로 미루어, 이 경우에 어간 말모음 '아'나 '어'가 삭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4.3. 語尾初 '으'의 削除

어미초 '으'의 삭제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어미의 첫음 '으'가 삭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15)와 (16)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 현상은 활용과 곡용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먼저 활용에서 어미초 '으'의 삭제는 연결어미 '으니, 으면, 으며' 등과, 과거나 미래표시 관형형어미 '은'이나 '을' 등에는 그대로 적용되어 방언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대표시 선어말어미(서북방언의 경우는 '평대 명령어미') '으시'의 '으'만은 어간 말자음 'ㄹ' 뒤에서 삭제되지 않는 사실이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에서 발견된다.[16] 그것은 (15b, d의 ㄴ)에서 확인된다. 다만 서북방언에서 동사 '말—(莫)'은 이 경우에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15bㄴ)에서 보듯이, 이 동사의 어간 말자음 'ㄹ' 뒤에서는 평대 명령어미 '으시'의 '으'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존대 명령어미 '으소셔'의 '으'는 동사 '말—'과의 통합에서도 삭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존대 등분과 같은 형태·통사론적 제약에 기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 제약이 동사 '말—'에 한정되는지 현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15)

a. 중부

ㄱ. 나며(나+으며出, 죠 17b), 울며(울+으며泣, 죠 13a)

cf. 어드며(얻+으며得, 과 4b)

ㄴ. 보시며(보+으시+으며示, 과 16a), 쓰시니(쓰+으시+으니書, 죠 14a), 아시(샤)(알+으시知, 관성 38b), 어지신(어질+으시+은仁, 죠 34a)

cf. 곳트신(지라)(같+으시+은同, 과 10b)

ㄷ. 누른(조회)(누르+은黃, 죠 24b), 어진(마음)(어질+은仁, 죠 34a)

cf. 검은(옷)(검+은黑, 죠 16b)

b. 서북

ㄱ. 보면(보+으면示, 쿄 51), 헐면(헐+으면毁, 요 3b)

cf. 먹으면(먹+으면食, 쿄 80)

ㄴ. 두시(두+으시置, 쿄 19), 맨들으시(맨들+으시造, 쿄 20), 달으시(달+으시計, 쿄 63), 걸으시(걸+으시懸, 쿄 69), 밀으시(밀+으시推, 쿄 80), 열으소셔(열+으소셔開, 누 30a), 말으소셔(말+으소셔莫, 누 14a), 이스시(잇+으시在, 쿄 53)

cf. (물 주디)마시(말+으시莫, 쿄 25), (보디)마시(말+으시莫, 쿄 76)

ㄷ. 할(말)(하+을爲, 쿄 51), 팔(자)(팔+을賣, 누 12a)

cf. 먹을(줄)(먹+을食, 쿄 49)

c. 동북

(16) 동북방언에는 존대표시 선어말어미 '으시'가 사용되지 않으므로(郭忠求, 1991 141의 註 32) 이 문제에 관한 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마는, 중부방언의 경우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중부방언의 前時期語가 되는 중세국어는, 다음의 예와 같이, 그 경우에 어미 '으'의 삭제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 '우르샤(울+으샤泣, 석 11:21), 미르시(리)(밀+으시推, 용 99) cf. 자보시(니) (잡+으시執, 용 58)'

ㄱ. 보문(보+으문〈=으면〉示, 교 52), 빌문(빌+으문祈, 교 71)
cf. 니부문(닙+으문被)(郭忠求 1991:344)
ㄴ. 어린(어리+은幼, 사 29), 긴(길+은長, 사 104)
cf. 부튼(붙+은附, 교 54)
d. 서남
ㄱ. 그리면서(그리+으면서畵, 춘 44), 뗄면(뗄+으면慄, 춘 76)
cf. 먹으면(먹+으면食, 박 326)
ㄴ. 보시(다가)(보+으시示, 춘 78), 알으시(고)(알+으시知, 춘 24), 울어시(니)(울+으시泣, 박 348), 스ᄅᆞ실(계)(살+으시+을生 춘 60)
cf. 우스시(며)(웃+으시笑, 춘 50)
ㄷ. 더린(옷)(대리+은, 춘 56), 단(방)(달+은懸, 춘 80)
cf. 늘근(어미)(늙+은老, 춘 60)

한편(15a, b, d의 ㄷ)과 (15c의 ㄴ)의 '어진(마음), 팔(쟈), 단(방)'과 '긴'의 경우에, 드러한 語形만으로는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 '으'의 삭제 與否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어간말의 'ㄹ' 뒤에서 관형형어미 '은'과 '을'의 '으'가 삭제되고, 다시 그 결과로 형성된 음절말 자음군의 단순화 과정에서 어간말의 'ㄹ'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예. 어질+은→어질 ㄴ→어진. 그러므로 그들 예에서도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 '으'의 삭제가 일어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곡용에서 어미 '으'가 삭제되는 조건은 활용에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한 차이는 주제격 '은'이나 대격 '을'의 '으'는 명사가 'ㄹ'로 끝난다고 하여도 그 뒤에서 삭제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명사와의 통합에서 어미 '으'가 삭제되는 것은 격어미 '으{로, 루}' 뿐이다.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곡용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은(16)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다.

(16)
a. 중부 : 연고로(연고+으로緣故, 죠 27b), 길노(길+으로路, 죠 35a)
cf. 길은(길+은路, 과 2b), 아들을(아들+을子, 죠 18b), 마음으로(마음+으로心, 죠 20a)
b. 서북 : 어디로(어디+으로何處, 코 51), 돌노(돌+으로石, 코 19)
cf. 말을(말+을語, 코 73), 가슴을(가슴+을胸, 누 49a), 쳔냥으로(쳔냥+으로千兩, 코 22)
c. 동북 : 동네르(동네+을르〈=으로〉洞, 사 40), 길르(길+을르路, 회 84)

cf. 초늘르(촌+을르村, 표 vi), 바르는(발+으는〈=은〉足, 교 17), 하나느(하나+느〈=는〉一, 회 201)

d. 서남 : 뒤로(뒤+으로後, 춘 82), 눈물노(눈물+으로淚, 춘 72)

cf. 돌은(돌+은石, 춘 52), 질을(질〈=길〉+을路, 춘 76), 날(나+을我, 춘30), 너를(너+를汝, 춘 76), 붓을(붓+을筆, 춘 44)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존대표시 선어말어미 '으시'의 '으' 삭제 여부와 같은 극히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어간과 어미의 모음삭제 현상은 모든 방언에서 일치한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는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하다.[17] 그러므로 어간과 어미의 모음삭제 현상에 관한 한, 19세기 후기국어가 가진 독자적인 특징은 없다.

5.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후기국어 중에서 중부, 서북, 동북, 서남의 네 방언을 통하여 모음 음운론적 문제 즉, 부사형어미의 교체, 활음화와 활음첨가, 그리고 어간과 어미의 모음삭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사형어미의 교체에서, 어미 '아'는 어간 말모음이 '오, 아'이면 '아'로, 그밖의 모음이면 '어'로 교체되며, 개음절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어간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어간 말음절 모음이 '으'나 '우'이면 先語幹末音節 모음의 종류에 따라 교체된다. 다시 말하여 先語幹末音節 모음이 '오, 아'이면 '아'로, 그 밖의 모음이면 '어'로 교체된다. 다만 서남방언의 경우에, 어간 말모음이 '아'인데도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가 '어'로 실현되는 상당히 많은 예들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러한 현상은 네 방언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는, 서남방언을 제외한 다른 세 방언에서는 부사형어미가 19세기 후기에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시기 국어의 모음체계를

(17)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각각 喆宋儀(1987)과 金完鎭(1972)를 참조할 것.

구성하는 모음들은 양성모음의 부류에 속하는 '아, 오'와 음성모음의 부류에 속하는 '으, 어, 우, 이, 에, 애, (외)'로 兩分되는데, 서남방언을 제외한 다른 세 방언에서 부사형어미는 그 두 부류의 모음에 따라서 엄격하게 '아'나 '어'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어간 말음절 모음이 '아'인 경우에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를 준수하지 않는 예들이 서북방언과 중부방언 그리고 서남방언의 순서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과 (5)). 현재의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에서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지을 때, 그것은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서남방언으로부터 북쪽으로 진행되면서 소멸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현대국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방언에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하면, 19세기 후기국어는 부사형어미의 모음조화가 소멸되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활음화와 활음첨가의 경우, 네 방언에서는 어간말이 '이'로 끝나면, 그 '이'는 부사형어미와 통합에서 j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간말이 음운변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이'나 '에, 애'로 끝나면, 이들 모음 뒤에서 부사형어미는 방언적 차이를 보인다. 그 경우에 중부, 서북, 서남 방언에서는 형태소 경계에 j가 첨가 되며 동북방언에서는 어간 말모음이 '이'이면 그것이 j화하고, 어간 말모음이 '에, 애'이면 부사형어미는 어간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한편, 어간 말음절의 구조가 '원순모음'만으로 이루어지면, 이 원순모음은 부사형 어미와의 통합에서 w화한다. 그러나 어간 말음절의 구조가 '자음+원순모음'이면 부사형어미와의 통합에서, 원순모음의 w화나(동북방언), w첨가(서북방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두 과정이 임의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중부방언), 원순모음의 w화가 일반적이지만 그대로 실현되기도 한다(서남방언).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기국어가 가진 특징이다. 어간말의 '이'와 부사형어미가 통합하면, 후기 중세국어서는 '이'의 j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형태소경계에 j가 첨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경우에 19세기 후기국어에서는 어간말의 '이'가 j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후기 중세국어에 비하여 음운론적 과정이 단순화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부, 서북, 서남 방언에서 음

운변화를 거쳐서 형성된 어간 말모음 '이'나 '에, 애'가 부사형어미와 통합하면, 형태소경계에 j가 첨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어간 말모음이 j하향 이중모음일 때에, 후기 중세국어가 실현하는 음운현상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 시기의 음운현상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현대의 중부, 서북, 서남 방언에서는 어간 말모음이 '이'이면, '이'가 j화하며, 어간 말모음이 '에, 애'이면 부사형어미는 어간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한다. 이러한 현상을 기준으로 하면, 19세기 후기국어는 현대국어보다 보수적이다.

어간말의 원순모음과 부사형어미가 통합하면,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어간 말음절의 구조에 따라 음운론적 과정이 달랐다. 즉, 어간 말음절이 원순모음만일 때에는 원순모음의 w화가 일어나고,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일때에는 음운론적 과정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여기서 前者의 경우는, 근대국어를 거쳐서 현대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는, 시대적 차이를 보인다. 즉 어간 말음절이 '자음+원순모음'일 때에, 19세기 후기국어에서는 원순모음의 w화나 형태소경계에 w첨가가 일어나고 현대국어에서는 원순모음의 w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19세기 후기국어는 후기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행되는 전환기 국어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끝으로 어간과 어미의 모음삭제의 경우, 19세기 후기국어를 이루는 네 방언은, 존대표시 선어말어미 '으시'의 '으' 삭제 여부와 같은 극히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어간과 어미의 모음삭제 현상에서 일치를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는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어간과 어미의 모음삭제 현상에 관한 한, 19세기 후기국어가 가진 독자적인 특징은 없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參 考 文 獻

郭忠求 (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_____ (1991), "咸鏡北道 六鎭方言의 音韻論,"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金英培 (1983), "*Corean Primer*의 음운현상," 한글 179.
_____ (1984), 平安方言硏究, 東國大 出版部.
金完鎭 (1971), 國語音韻體系의 硏究, 一潮閣.
_____ (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東亞文化(서울대) 11.
_____ (1978), "音韻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2.
金履浹 (1981),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김정수 (1979), "17세기초기 국어의 때매김법과 강조 영탄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에 대한 연구," 언어학 4.
南廣祐 (1971), "近世語 硏究," 亞細亞硏究 41.
南星祐 (1980), "近代國語의 多義," 外國語大論文集 13.
李根圭 (1980), "17世紀 國語의 몇 가지 문제," 池憲英先生古稀紀念論文集.
李基文 (1978/72), 國語史槪說(改訂), 塔出版社.
_____ (1979), "十九世紀末葉의 國語에 대하여," 蘭汀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李秉根 (1970a), "十九世紀 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_____ (1970b),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서울대) 9.
_____ (1976),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3.
李崇寧 (1949), "母音調和硏究," 震檀學報 16.
_____ (1958/54), "15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音韻論硏究(再版), 民衆書館.
_____ (1970), "近代國語 硏究의 管見 : 17世紀國語를 주로 하여," 駱山語文(서울대) 2.
_____ (1971), "17世紀 國語의 音韻史的 考察," 東洋學 1.
_____ (1972), "17世紀 初期國語의 形態論的 考察," 東洋學 2.
李承旭 (1971), "18世紀 國語의 形態論的 特徵 : 老乞大類의 國語關係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東洋學 1.
宋 敏 (1976), "十九世紀 天主敎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 73.
宋喆儀 (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16.
劉昌惇 (1984/64), 李朝語辭典, 延世大 出版部.
田光鉉 (1971a), "18世紀 後期國語의 一考察," 全北大論文集, 13.
_____ (1971b), "18世紀 前期國語의 一考察," 어학(全北大) 5.
鄭遇澤 (1987), "後期近代國語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國語硏究 79.
鄭允子 (1990), "近代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音素論的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崔明玉 (1985a),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變則動詞를 中心으로," 國語學 14.
_____ (1985b),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論," 人文硏究(嶺南大) 7-4.
_____ (1986),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體系," 國語學新硏究, 塔出版社.
_____ (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li-, lə-, e(jə)-, h-變則動詞를 中

心으로," 語學硏究 24-1.
_____ (1992), "慶尙北道의 方言地理學 : 副詞形語尾 '-아X'의 母音調和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3.
崔林植 (1984),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母音體系,"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崔銓承 (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洪允杓 (1980a), "近代國語의 格硏究(Ⅰ)-主格-," 一山金俊榮先生華甲紀念論叢.
_____ (1980b), "近代國語의 格硏究(Ⅰ)-屬格-," 延岩玄平孝博士華甲紀念論叢.